



42.195km 완주를 향해 24일 오전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주최 나주 마라톤동호회 주관 '제8회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 선수들이 42.195km 완주를 향해 출발을 하고 있다.

봄기운 가득 42.195km 나주영산강마라톤 성료

남 고영석·공상운·강두희...女 권순희·권효정·추은하

제주·통영·외국인·가족 등 봄 기운을 머금으며 영산강변 42.195km를 질주하는 '나주영산강 마라톤대회'가 3년만에 성황리에 펼쳐졌다.

24일 오전 전남 나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는 1000여명의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참여해 뉴시스광주·전남본부 주최·나주마라톤동호회 주관 '제8회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나주영산강 마라톤대회가 3년만에 열린다는 소식에 제주·통영 등 전국의 마라톤동호회들은 나주로 모여 봄꽃 만발한 영산강변을 질주했다.

외국인을 비롯해 가족·연인 참가자들도 영산강길을 달리며 봄 기운을 만끽했다.

대회는 42.195km를 완주하는 풀코스(42.195km)와 21km 여를 뛰는 하프코스, 10km, 5km 등 4개 코스로 나누어 펼쳐졌다.

나주스포츠파크를 출발해 빛가람대교~나주대교~승촌보~영산강야구장~산정교를 거쳐 돌아오는 풀코스 남자부 1위는 2시간49분38초를 기록한 고영석(광주달리기교실), 2위는 공상운(광주달리기교실·2시간52분27초), 3위는 강두희(2시간53분03초)가 차지했다.

풀코스 여자부는 권순희가 3시간13분21초로 1위, 권효정(3시간20분34초)이 2위, 추은하(광주달리기교실·3시간28분49초)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승촌보까지 왕복하는 하프코스 남자부 부문은 1시간13분38초23을 기록한 마성민(광주달리기교실)이 1위, 김승연이 2위(1시간21분22초28), 김재복이 3위(1시간22분46초81)를 차지했다.

하프코스 여자는 정미화(고성마라톤)가 1시간37분59초63의 기록으로 1위, 2위는 한수진이 1시간41분46초96, 3위는 하태진(전주마라톤클럽)이 1시간46분37초84를 기록했다.

10km 구간 남자부 부문은 이재식이 33분04초35의 기록으로 1위, 안규석(광주달리기교실)이 35분29초21로 2위, 같은 클럽의 이인식이 36분34초02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여자부 10km는 임나영(전주마라톤클럽)이 45분29초18의 기록으로 1위, 2위는 같은 클럽의 이순자(46분15초87), 3위는 박은정(목포사랑동호회)이 47분14초74를 기록했다.

가족·연인이 많이 출전한 5km 구간 남자부 1위는 서민보·2위 신현호·3위 문복식, 여자부 1위 정인숙·2위 이은형·3위 박경선이 차지했다.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출전 제한은 없었지만 주최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회 개막에 앞서 발열 등을 확인했으며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선수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준비운동을 한 뒤 도전에 나선 코스를 질주했다. 참가자가 많은 하프코스는 출발 인원이 200명으로 제한되기도 했다.

임상을 하지 못했지만 각 부문별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기록칩, 완주메달, 간식 등이 제공됐다.

또 이날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산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이 전막을 설치하고 출전선수들의 물병을 채워주는 등 지원에 힘썼다.

음식상환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본부에 의료센터와 구급차가 배치됐으며 독도사관페어링팀 20여명이 레이스패트roller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며 선수들의 완주를 도왔다.

제주마라톤동호회 강기하(65)씨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처음 열린 마라톤 대회라 망설임 없이 회인 7명과 함께 나주까지 달려왔다"며 "마라톤 마치고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지역 관광하고 돌아갈 계획이다"고 완주 뒤 기쁜 숨을 몰아 쉬었다.

통영 마라톤 동호회원 김재복(68)씨는 "매년 대회에 출전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년간 달릴 기회가 없어 마라톤에 대한 갈증이 컸다"며 "봄 기운이 가득한 나주영산강변을 달릴 수 있어 기쁘고 설렌다"고 말했다.

구갈을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장은 "10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를 잊지 않고 참가했으며 영산강의 봄 기운을 만끽했다"며 "다음 대회도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안전하게 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전남도민 체육 한마당' 제61회 전남체전 출격 준비 완료

22개 시·군 6700여명 선수단 순천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남도민의 체육 한마당이자 도내 가장 큰 체육대회인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들이 출격 준비를 마쳤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지난 20일 까지 진행된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 신청 결과 22개 시·군 선수단이 출전할 22개 종목에 총 6,706명의 선수단(선수 4,378명, 임원 2,328명)이 참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보성군에서 열린 제58회 체전 이후 3년 만에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남체전에 22개 시·군 선수단은 소속된 시·군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닦

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 58회 대회(총인원 7,060명(임원 2,623명, 선수 4,437명)보다 참가인원이 총 354명 감소(임원 295명, 선수 59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선수단에는 광양시가 423명의 선수단으로(선수 215명, 임원 208명) 가장 규모가 큰 선수단을 꾸렸고, 이어 개최지인 순천이 404명의 선수단을(선수 215명, 임원 189명) 구성했다.

종목별로는 육상이 22개 시·군 538명의 선수들이 참가 신청을 마쳐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종목이 됐다.

'가자-순천으로!', '즐거자-전남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200만 전남도민이 하나 되는 제61회 전라남도체육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육상, 축구 등 22개 정식종목과 족구, 게이트볼 등 2개의 전시종목으로 치러진다.

김재무 회장은 "제61회 전남체전이 코로나19로 그동안 많이 지쳐있던 도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대회, 도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오후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에서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대표자 회의 및 대진추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전북 김상식 감독 "공격 축구로 많은 골 노릴 것"

오늘 호앙아인과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 중인 전북 현대가 보다 공격적인 축구로 다득점을 노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은 25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베트남 호치민의 톤스타디움에서 호앙아인 잘라이(베트남)를 상대로 2022 AFC 챔피언스리그 H 조 조별리그 4차전을 치른다.

시드니FC(호주)와의 1차전에서 0-0으로 비겼던 전북은 이후 2경기에서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 호앙아인을 차례로 꺾었다. 2승1무(승점 7)로 H 조 선두다.

하지만 3경기에서 2골에 그쳐 빈약한 공격력이 아쉬움을 남겼다.

김상식 감독은 24일 사전 기자회견에서 "조

별에선 3경기를 끝내고 반환점을 돌았다. 2승1무로 원하는 위치에 오르게 됐고, 각 팀과 한 번씩 경기를 치르며 장단점을 파악했다"며 "4차전도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로 승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북(2골)뿐 아니라 요코하마가 3골, 호앙아인이 2골, 시드니가 1골로 같은 그룹에 속한 팀들이 전체적으로 골을 많이 기록하지 못했다"며 "모든 팀의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반환점을 돈만큼 보다 슈팅 숫자를 늘려 공격적인 축구로 많은 골이 터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호앙아인과 3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문선민의 결승골로 극적인 승리를 챙긴 김



감독은 "호앙아인이 체력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아시아에 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현재 순위는 낮지만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겨울 도전을 받았기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수 대표로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보경은 "이번 대회에서 동남아 팀들의 성적이 눈에 띄고 있다. 3경기를 보면 호앙아인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선수들의 실력 또한 좋다"며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한다. 준비를 잘해 연속으로 승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강진군,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종합 준우승

강진군청 사이클팀(감독 박경준)이 제39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 은메달 1, 동메달 5개를 획득하여 종합준우승의 쾌거를 이뤄 스포츠 매가 강진을 알렸다.

대회 첫날 열린 독주경기에서 안희상 선수의 동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김상표 선수가 팀포레이스 1위, 김지호 선수 스크래치 2위, 안희상 선수 스크래치 3위, 배승민 선

수 유니폼포인트 3위, 신동인 선수가 팀포레이스 3위, 유니폼종합 3위를 차지해 강진군 사이클팀이 최종 준우승했으며, 강진군청 정점식 코치는 최우수 지도자상까지 거머쥐었다.

장단 이후 20년째 강진군청 사이클팀을 지휘하고 있는 박경준 감독은 "성실히 연습하고 결과까지 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있을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